

기호 1

신경림 회장 후보



◇ 학 력

- 이화여대 간호대학
- 미국 컬럼비아대 문학 석사
- 미국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석사
- 미국 컬럼비아대 간호교육학 박사

◇ 경 력

- 대한간호협회 회장 (현)
-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현)
- 제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및 여성가족위원)
-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장 (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 대한간호협회 회장 (제32대·제33대)
-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 포 상

- 보건부의 날 '황조근정훈장'
- 국회 종합현정대상
-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 국회 사무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 국제시그마테타우 (STTI) 간호사 연구자 명예의 전당
- 국제질적연구센터 (IIQM) 국제지도자상

존경하는 대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국민과 환자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42만 간호사 여러분! 제 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신경림입니다.

저는 이제 100년 간호역사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간호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 및 복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간호사는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간호시대(The era of Nursing)"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간호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2008년 32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간호계의 혁신과 발전,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2011년, 회장으로서는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학제 4년 일원화 '고등교육법' 개정에 성공했고, 국회의원으로서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제정과 간호사 업무정립 등 낱고 후진적인 '의료법'의 개정으로 간호계가 진일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37대 회장으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 마무리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신설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간호사 회원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열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5개 핵심공약과 15개 실천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제38대 회장단은 헌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간호 100년을 향해 도전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월희 제1부회장 후보



◇ 학력 - 서울대 간호대학, 연세대 교육학 석사

◇ 경력 -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현), 병원간호사회 회장,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부장,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강사

◇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영경 제2부회장 후보



◇ 학력 - 부산대 간호대학, 이화여대 이학 박사

◇ 경력 -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현), 부산간호사회 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 및 감사,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장

◇ 포상 - 한국간호과학회 우수논문상, 한국모자보건학회 우수논문상, 대한간호학술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부산시장상

저는 부산간호사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이사 및 부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의 발전, 간호사의 지위 확립 및 권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보건의료 및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간호 교육 제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및 간호수가 체계 개편을 위해 매진하며, 간호현장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간호사의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의 연수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기존의 보수교육을 다양한 간호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 무료교육의 확대를 통해 회원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의 제공과 동시에 우리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쓰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면서 계속)

△간병서비스 만족도=간병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이용자의 경우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60.2% 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는 비싼 간병비,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 간병서비스가 서투

름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 서비스 만족도=와래진료 중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3.9%였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함' 92.1%, '치료나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의사와의 대화시간이 충분함' 74.7%,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

해줌' 80.4%로 나타났다.

입원진료 중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86.1%였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치료나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줌' 80.5%

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뢰진 손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의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 대기 및 대기 사유=지난 1년 동안 입원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

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였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순이었다.

△입원 환경 및 환자 안전='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9.2%)에 비해 2배 높았다.

입원환자의 43.1%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58.4%)에 비해 개선됐다.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해 많아졌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2018년(6.4%)에 비해 높아졌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로, 2018년(6.2%)에 비해 늘었다.

기호 1번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단 후보
신경림·곽월희·김영경

도전과 혁신으로

“간호시대 (The era of Nursing)”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한국의 보건의료 및 복지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도 치료(Cure)에서 돌봄(Care)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간호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간호사는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 및 효율성 제고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간호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제 곧 열릴 "간호시대"를 준비할 뿐 아니라 2023년 대한간호협회 설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제38대 회장단 후보는 5대 핵심공약과 15개 실천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 관련 법·제도 혁신

- 1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조산)법 제정
- 2 체계적인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의 정규부서 전환
- 3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간호모형 개발 및 제도 개선

2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비전 및 조직 혁신

- 1 대한간호협회 회관 신축 및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협회 100년사 편찬
- 2 대한간호협회 100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장기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 3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대국민을 중심으로 조직, 의사결정체계 및 홍보 혁신

3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현장 혁신

- 1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18.3.20」의 확대 개편 추진
- 2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및 간호수가 체계 개편
- 3 노동시간 및 법정간호인력기준, 간호조직문화 개선으로 간호현장 혁신

4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교육 혁신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대비 및 임상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혁신
- 2 다양한 간호현장의 특성과 회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교육체계 혁신
- 3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체계 혁신

5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국제사업 혁신

- 1 WHO 지정 2020 "세계간호사의 해"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
- 2 ICN, WHO, UN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 3 Nursing Now(보편적 건강보장 캠페인) 참여 및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추천 지원

▲ 신경림 회장 후보 선거공약